

**시놉시스**

건축을 사랑하는 케이시와 혼수상태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온 한국계 미국인 진은 현대건축의 메카로 꼽히는 콜럼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케이시는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진은 건축가인 아버지와 소원한 사이로 콜럼버스에 머무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둘은 건축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건축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는다.

[1:05:00]

[Casey]

Can I ask you something?  
뭐 물어봐도 돼요?

[Jin]

Maybe.  
맘대로 해요.

[Casey]

Why aren't you at the hospital?  
왜 병원에 안 가요?

[Jin]

Nothing's changed, you know? If I were there right now, it would be just like... the last time I saw him. He'd just be lying there. Why would I just stare at him all day?  
달라질 게 없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 봤자, 저번이랑 같을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을 뭐 하러 지켜봐요?

[Casey]

You could talk to him.  
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Jin]

This isn't a movie, nothing's going to happen.  
영화 같은 일은 없을 거예요.

[Casey]

You know, there's been research...

관련 연구도...

[Jin]

I don't want to talk to him. We never talked. He was never interested. Why should I bother him now?

말 걸기 싫어요. 우린 대화를 안 했어요. 관심조차 없으셨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Casey]

Do you think he's got a chance to recover? Even if it's just enough to go back to Seoul? 회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돌아갈 정도만이라도요.

[Jin]

God... I hope not.

맙소사... 아니길 바라요.

[Casey]

What?

네?

[Jin]

The truth is, if I were in Korea...I'd be expected to be there when he died to express sorrow in the most dramatic fashion. There's a belief that if you're not there... when a family member dies and not adequately grieving... your spirit will roam aimlessly and become a '객귀', a ghost. Of course, my dad didn't believe in that shit... but still, it would be expected of me.

여기가 한국이었다면, 난 아버지 임종 때 곁에 남아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애도를 표해야 해요. 가족이 죽을 때 곁을 지키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면 영혼이 정처 없이 떠돌다 '객귀'가 된다고 하거든요. 유령 말이에요.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임종은 지켜야겠죠.

[Casey]

Do you believe in it?

당신은 믿어요?

[Jin]

No.

아니요.

[Casey]

But if you were in Korea, you'd go along with it.

하지만 한국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Jin]

Probably.

아마도요.

[Casey]

So what? You don't want him to get better?

그러면, 회복하시는 게 싫어요?

[Jin]

Maybe not.

그렇지도 몰라요.

[Casey]

Oh... that's so sad.

슬픈 일이네요.